

#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5>]1911년 서귀포에 온주 밀감 첫 도입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2.11. 00:01:00

## 제1부 제주식물 세계화 100년



### 4. 온주밀감 도입-타케(하)

성직자이자 식물학자인 타케신부가 감귤주산지인 서귀포지역에 온주밀감을 처음 도입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때가 20세기에 들어와 1911년의 일이다.

조선시대에도 제주에는 많은 감귤원이 있었다. 그러나 조정에 진상품 생산을 위한 것이어서 주민소득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관의 통제에 의한 재배로 그 민폐가 막심했다. 감귤원을 맡은 농민들은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일부러 귤나무를 고사시키는 일이 잦았다. 진상제도는 조선조 고종 31년(1893년)에 이르러 폐지되었으나 농민들은 감귤재배에 큰 관심이 없었다.

제주감귤은 일제 강점기를 전후해 전환기를 맞는다. 이 때가 경제적 소득을 목적으로 감귤이 재배되기 시작한 시기다. 근대적 의미의 제주감귤재배의 시작이다.

그 효시는 개화파의 주역인 박영효로 전해진다. 박영효는 1884년 김옥균 등과 함께 일으킨 정변으로 일본에 망명한 후 1907년 9월에는 제주도에 유배되어 1년간 적거생활을 했다. 그 후로도 유배기간을 합쳐 3년간 제주에 머물렀다.

그러나 박영효가 제주에 거주하는 동안 원예작물의 재배를 널리 장려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제주도 기후가 일본과 흡사하다는 데서 도민에게 원예작물을 보급한다. 개량 감귤을 비롯해 토마토, 가지 등의 재배와 보급에 힘을 기울인 것도 바로 이 시기다.

그는 개량 감귤을 제주시 구남천(구남동)에 심었으나 그가 제주를 떠난 후에는 점차 자취를 감춰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한 그루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일한국인의사회 관서지회장인 제주출신 강건영 박사는 최근 본지에 보낸 기고문(1월 13일자 10면)에서 박영효가 개량 감귤을 제주에서 재배했던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타케(Emile Joseph Taquet, 1873~1952, 한국명 嚴宅基) 신부는 서귀포에 온주밀감을 전파한 최초의 인물이다. 이 때가 1911년이다. 훗날 우리나라 최대 감귤주산지로 탈바꿈한 서귀포지역 온주밀감 재배가 타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타케 신부는 1902년 서귀포 하논성당에 첫 부임한 이후 1915년까지 서흥(당시는 烘爐)성당에서 선교활동과 식물채집을 하는 동안 일본으로부터 온주밀감(溫州密柑)을 들여와 서흥성당 일대에 심었다. 그가 도입한 온주밀감은 1911년 역시 프랑스 출신 성직자로 일본 아오모리에 주재하던 '포리'(Faurie R. P, 1847~1915) 신부로부터 받은 묘목이다. 타케는 모두 14그루의 감

굴을 심었으나 지금은 옛 서흥성당 자리에 1그루만 남아 있다.

이를 흥미있게 지켜보던 사람은 서귀포에서 상업을 하던 일본인 '미네'였다. 그는 타케의 경험으로 서귀포 지역에서도 온주밀감의 재배가 가능한 것을 보고 1913년에 많은 묘목을 도입해 서귀읍 서흥리에 심었다. 이 때 조성된 과원이 제주농원이며, 이는 처음으로 규모를 갖춘 큰 농장이었다. 이후 하논분화구 경사지 등으로 재배범위가 확대되었다.

일제때 감귤재배가 권장되었으나 재배기술은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다. 제주감협 40년사는 "감귤재배에 관심을 가진 농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제 탄압하의 농가경제의 여건으로 보아 감귤원 개원은 고도의 기술과 자본조달에 자신을 가진 특수농가만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일반 농가는 개원하는 농가가 별로 없었던 까닭에 몇 그루씩 정원수로 심는데 그치고 재배면적의 확대가 극히 지지부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4.3사건과 6.25로 생활터전마저 잃은 농민들이 많아 감귤에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다.

50년대 중반부터는 감귤재배농가가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 1964년에 이르러 당시 박정희대통령이 제주 연두순시에서 "제주감귤을 적극 장려할 것"을 특별지시함으로써 감귤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됐다. 감귤이 이른바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감귤은 1세기가 지난 21세기에 다시 시련을 겪고 있다. 수입 개방으로 국경없이 넘나드는 과일이 쏟아지고 있으며 제주감귤은 과잉생산과 유통처리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설명]서귀포시 옛 서흥성당에 남아있는 온주밀감. 타케신부가 1911년 서귀포에 처음 도입해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그루만 남아 보존가치가 요구된다./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